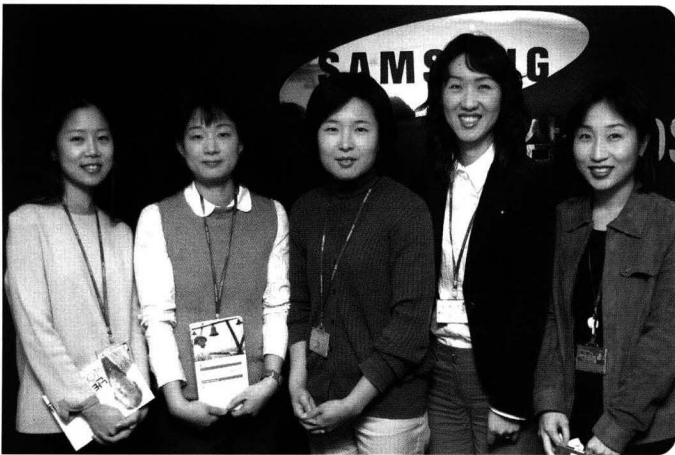


- 누룽지국 먹어가는 계절. 나눠서 맛있는게 음식뿐이라.” ● 책도 돌려 읽을때 그 참맛이 배로 느껴진단다.
-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을 보내고 성큼 다가온 가을 속에서 삼성 SDS 여성직원들은 행복한 책읽기의 참맛을 톡톡히 즐기는 중이다. ● 혼자 읽어 즐거운게 아니라 함께 돌려 읽기에 그 기쁨이 배기된다는 독서. 사내 우편망을 통해 '행복한 책읽기'를 즐기는 여성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특별한 독서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 사내우편망으로 책 배달, 갈피갈피 직원들의 정情 담겨



여성직원들끼리 책을 돌려읽는 '행복한 책읽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삼성 SDS 직원들.

삼성 SDS 여성직원들이 책을 돌려 읽는 '행복한 책읽기 캠페인'을 시도한 것은 지난 8월 말. 인사팀 책임 정지영 씨가 처음으로 출판사에서 기증받은 《나는 남자보다 적극통장이 좋다》(위즈덤하우스)를 사내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나눠주는 이벤트를 통해 각자가 읽은 책을 돌려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렇다고 거창한 캠페인을 구상한 건 아니었다. 마침 여성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위민닷컴(www.sdswomen.com)'이 마련돼 있어 이 공간에 '행복한 책읽기'란 게시판을 만들고 캠페인 공지를 올리는 정도였다.

“출판사, 회사 사장님, 회사 간부 등이 기증해 주신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간략히 소개하고 말미에 '읽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리플을 달아주세요'란 글을 남겼습니다. 소개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우가 자신의 이름과 부서를 적어 신청을 하면 며칠 내로 사내우편망을 통해 책이 배달됐죠. 그분이 책을 다 읽은 후엔 리플을 단 다음 사원에게 책을 발송하는 형식이지요.”

우편망이라 하니 분실 위험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걱정할 필요 없었다. 삼성 SDS는 유난히 사내우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책 발송과 수령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지방에 있는 직원들의 참여도 활발한 상태다.

건조하게 책만 오고간다면 “무슨 재미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캠페인을 주최한 정지영 씨는 책장에 '위미니 부탁문'과 '독서카드'를 붙였다. “책과 함께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란 정겨운 문장으로 끝나는 부탁문에는 100번째 사람이 볼 때도 새 책처럼 느껴지도록, 반납이 늦어질 땐 사이트를 통해 알려주길 당부하는 등 유념할 사항들이 정리돼 있다. 읽고 싶은 책을 방금 수령한 직원에게 '독서카드'를 읽는 즐거움도 함께 배달된다. 단 몇 줄에 불과하지만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의 짧은 감상평을 보는 재미



가 쏠쏠하다는 뒷얘기다.

“독서를 통해 기혼 또는 미혼여성들의 공통된 고민을 해결하기도 한다”는 책읽기 캠페인의 또 다른 참가자는 “이 캠페인의 장점은 여성, SDS 회사 사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는 점인 것 같다”고 했다.

“회사 내에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계발을 위한 실용서나 IT관련분야 책이 많거든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고민거리는 크게 몇 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미혼여성은 남성 심리, 결혼문제 등을 궁금해하고, 기혼여성은 육아, 남편과의 관계 등을 고민하지요. 저희가 돌려봤던 책은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책들이었어요.”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현재까지 돌려 읽은 책은 약 25권. 여사원들은 독서카드와 책이 돌려지는 중에 남모를 유대감이 쌓여가는 것 같으며 ‘비밀’을 털어놓는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원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이 오간다.

20대 후반의 또 다른 사원은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이다 자기계발이다 해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 “누구나 시간이 부족하단 생각을 할 겁니다. 또한 늘 컴퓨터와 살다시피 하다보니 내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갖기 힘든 게 현실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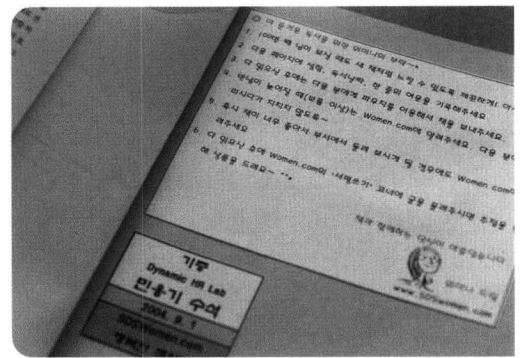
더욱이 “책을 읽고 싶어도 서점에 나온 수많은 책 가운데 읽을 만한 책을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 때 누군가가 책을 추천해 주고 배달까지 해주니 다들 고마워 한다”는 얘기가 있다. 또 사내에서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책을 읽는다는 사실에 새삼스런 감회도 느낀다.

한 사원은 《기획 천재 홍대리》란 책을 받아보고 적잖이 놀랐던 경험을 소개한다. 캠페인을 통해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깨끗한 상태로 자신에게 배달돼 무척 놀라웠다는 사연이다. 정지영 씨의 ‘위미니 부탁문’에 자

극을 받았던 것일까. 대부분 직원들이 출퇴근 시 책을 읽는 데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통해 돌려 읽은 책은 유난히 깨끗하다.

한편 삼성SDS 김인 사장도 매주 직원들에게 보내는 ‘월요편지’를 통해 이 캠페인을 격려하며 직원들의 문화적 관심을 높이 샀다. 사실 김 사장 스스로도 사원들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책사랑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재계에선 열혈 독서광 CEO로 소문이 자자하고, 평소 지인과 직원들에게 책선물을 자주 하는 인물로도 정평이 나았다.

두 딸을 둔 주부 사원 A씨는 “평소 살아가는 지혜도 얻



고 싶었고, 결혼생활에 대한 여러 궁금증도 많았다”고 한다. “마침 오한숙희 씨의 《부부? 살아 말어?》란 책을 읽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책을 읽으니 삶의 활력도 생기고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요. 신청한 책이 배달돼 왔을 때의 기쁨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북 크로싱 운동이나 삼성SDS ‘행복한 책읽기’나 책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는 같다. 다만 전자가 서가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깨우자는 의도로 기획했다면 후자는 기증받은 책을 깨워 사원들끼리 함께 읽어보도록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나눔’의 가치가 요구되는 게 이 시대죠. 그럴 때 책 한권이라도 함께 돌려 읽어보자는 권유가 있으니 직원들의 가을은 어느 가을보다 풍요로울 겁니다.”

이번 기획을 내놓은 정지영 씨는 “50권 정도 상시적으로 돌려 읽을 책이 확보되면 일단 읽은 책은 불우이웃에게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해 더욱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

취재 김형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